# 목포, 설 명절 방역 취약시설 점검

##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 실시…선제검사 추진도
## 잠시 멈춤 운동 호소·연휴기간 휴일 없이 운영

목포시가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5일로 기간이 길어서 귀성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한 지역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는 긴장의 수위를 높여 연휴 전후로 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고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형마트, 전통시장, 육가공시설, 대중교통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광지, 성묘·봉안시설,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 취약시설의 방역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 방역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에도 방역지침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설마다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명절 전후로는 방역 소독 실시와 직원·종사자 등의 선제검사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소를 휴일 없이 운영한다.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21일 현재 41병실 160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가동률은 64%(103병상)며, 잔여 병상은 57개다. 시는 3병실, 20병상을 추가해 44병실 180병상 확보를 목표로 전남도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확진자 중 상당수가 타지역 방문자이거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자임에 따라 다음주에 귀성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잠시 멈춤' 운동에도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코로나 2~3차 예방을 마친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12개소 172명) 여성복지시설(5개소 78명) 청소년시설(2개소, 16명) 지역아동센터(40개소, 85명) 보육시설(175개소 1,893명) 등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주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어린이집 175개소에 자가진단키트 9,688개를 배부했다.

이어 24일에는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1,000개, 여성복지시설 5개소에 325개를 배부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연휴만큼은 고향 방문을 미루시고, 가족들에게도 목포 방문 자제를 부탁드리기를 호소드린다"면서 "타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한 후 방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청렴한 설 명절보내기 운동' 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 발령, 근무시작 전·후 '청렴 SONG' 청내 방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 운동' 홍보를 위한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포한다.

아울러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공직감찰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청자빚기 체험 프로그램 모습. /강진군 제공

# "가족과 청자빚기 체험하세요"

## 조각·코일링 등 연중무휴 교육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연중무휴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설 청자빚기 체험장에서 청자빚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진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100평 규모의 체험장에는 80여 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동물레를 비롯한 각종 체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청자빚기 체험, ▲조각체험, ▲물레성형, ▲코일링 체험 등이 있다.

청자빚기 체험은 조각, 물레성형, 코일링, 모자이크 체험 등이 있으며, 체험 작품은 초벌구이와 본벌구이를 거쳐 체험자에게 택배로 발송된다. 조각체험은 일정한 형태로 이미 성형돼 반 건조된 청자작품에 조각도를 이용해 글씨나 그림 등을 새겨 넣는 체험으로 물컵, 반상기, 꽃병, 매병, 주병 등을 직접 조각할 수 있다.

물레성형과 코일링 체험은 점토 1kg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고, 모자이크체험은 종이로 제작된 소형 매병과 주병형태의 합판에 청자파편을 직접 붙여 제작한다.

각 체험은 20분에서 최대 60분 정도 소요되며, 체험 비용은 물컵, 화병, 머그컵, 소형 매병과 주병 등은 8,000원에서 15,000원까지 다양하다.

마국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설 명절에도 청자빚기 체험장은 쉬지 않고 운영하니 많은 군민과 관람객이 찾아와 우리 청자의 아름다움을 손끝으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강진, 농업인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

## 2곳 선정…위생안전 시설 개선 추진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식품안전관리 기술 확대를 위해 HACCP인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HACCP 인증에 대응하고 식품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참여 업체 농업회사법인 ㈜산다움(대표 최기호)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개선과 장비구입으로 제품생산 기반을 조성해 지난 7월 빵류 및 떡류에 대한 HACCP 인증을 완료하고 신제품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사업대상자인 참좋은된장강진토하젓(대표 박정임)은 강진군 최초 된장으로 HACCP인증을 받아 '참맛있는된장' 상표를 출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식이 증폭되고 있어 올해도 신규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해 HACCP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춘기 소장은 "HACCP 인증으로 막막해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진 농산물가공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해남, 용배수로 정비 본격 추진

해남군이 용수 공급과 빗물 배제기능 향상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273억원을 투입, 관내 412개 지구에 대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 말까지 최대한 많은 지구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조기 발주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읍면 토목직으로 설계반을 구성, 합동집무를 통해 조사측량부터 자체 설계를 진행했다.

군은 여름 장마철 이전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배수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 진도, 어업인 재해보험 부담금 확대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4억원을 투입, 수산 분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50%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10톤 미만 어선 소유자 등 연근해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 전복, 김 등 7개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 보호를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도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며, 어업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 받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어선·어선원 재해 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한국효도회 강진지회, 명절 선물 기탁

(사)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는 최근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하고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김자반을 강진군에 전달했다.

마삼섭 지회장은 "강진 학생들이 효를 실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한다"며 "김자반 세트도 명절을 홀로 보내실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이사장은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의 올바른 학업과 꿈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효도회 강진지회는 2014년에 설립돼 현재 25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 무안 현경면 해야농장, 사랑의 쌀 100포 후원

무안군 현경면은 최근 해야농장(대표 김기주)에서 현경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10kg 100포를 후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김기주 대표는 현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명절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과 만나기 어려운 소외가정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후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받은 쌀은 현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각 마을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 완도해경, 도선 민·관 합동 기동점검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설 연휴 기간 도서지역 귀성객 등 도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 해상안전 기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해상안전 기동점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완도해경, 완도군청, 해양안전교통공단(KOMSA)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관내 도선 2척과 선착장 2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박상환 해양안전과장은 "도서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바닷길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선박과 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최규욱 기자